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25호 2004년 6월 25일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29~32 / FAX.042-472-3264

산업기능요원, 내년에도 계속 업계지원
- 7월 1일부터 한 달간 신청·접수 -

정부는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내년부터 중단키로 하였던 산업기능요원 4500명을 신규로 중소기업에 배정한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는 병역업체 지정과 기존 지정업체의 요원배정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신규 병역업체 지정과 기존 지정업체의 요원배정에 대한 신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각 지역 산하기관에서 접수하며,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신규 병역업체 지정 신청만을 접수한다.

신규 병역업체 지정대상은 신청일 현재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인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과 발전·발전보수업 등 에너지산

업 분야는 상시종업원이 30인 이상이며, 광업분야는 10인 이상인 업체이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소정양식의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및 업체평가를 받을 수 있는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지역 접수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신규 지정업체 선정과 기존 업체 산업기능요원 배정은 업체의 제출자료에 의거 평가하여 평점이 높은 순위로 배정이 결정된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지정 중소기업체 현장에서 34개월을 근무하면 현역 군복무로 대체해주는 제도로써 현재 근무 중인 현역 산업기능요원은 3만6천여명(보충역 포함시 7만여명)이다.

최근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1.3%인 8조6천여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23조7천여억원의 매출액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현역 배정인원이 축소되어 왔고, 내년부터는 배정을 중단키로 하였으나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감안해 내년도 올해와 같은 규모인 4500명을 배정기로 했다.

또한 2006년 이후의 중장기 인력지원 규모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을 포함한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병무청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연구·검토 중에 있다.

▶ **기업성장지원국**
인력지원과(042-481-4394)

중소기업 ICMS 협업사업 본격 추진

- 30여개 협업 컨소시엄 구성, 인증제 도입도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능 전문화 및 협업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ICMS 협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ICMS(Integrated Contract Manufacturing Service)는 기능전문기업의 네트워킹 중심 경영으로 여러 개의 중소기업이 분업화, 전문화 및 협업화에 의해 각기 특화 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비핵심 부문은 고도화된 협업을 통해 조달하는 경영방식으로,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중소기업간 협력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기청은 올해 ICMS 협업 사업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사업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협업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협업 컨소시엄의 구성 촉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기반 구축을 위해 올 하반기에 전문기업 현황 및 협업 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ICMS DB를 구축하고, ICMS e-비즈넷 및 연합 전사적자원관리(ERP) 구축 등 정보화 인프라도 확충하며, ICMS 협업 경영을 확산·전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CEO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ICMS 경영교육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연수기관에 ICMS 전문가 양성 과정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올해 30여개의 ICMS 협업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내년에는 이를 200여개로 확대하여 ICMS 협업경영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결성된 컨소시엄에 대한 대외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네트워킹 기업에 대한 ICMS 협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컨소시엄 참여기

업의 책임한계 및 수익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ICMS 협업 표준약정서를 개발·보급하여 참여기업간 신뢰성을 증진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협업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ICMS 협업 기업에는 기술정보 수집, 시장 전망조사, 사업성 평가 등 사업추진 전략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ICMS 협업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을 우대 지원한다.

ICMS 협업 사업이 중소기업간 협력 모델로 정착될 경우, 중소기업이 핵심역량의 집중 및 전문화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

유지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부품·소재 국산화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제조업공동화를 방지하고 산업구조도 혁신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측면에서도 R&D 전문기업이 대규모 설비투자의 리스크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고, 제조 전문기업은 규모의 경제에 의한 제품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가능하며, 구매·물류 전문기업은 대량구매 및 물류에 의한 Buying Power 향상과 재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소기업정책국
기업환경개선과
(02-503-7930)

미국조달시장 진출전략 교육 실시

중소기업청은 오는 7월 1~2일 양일간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국조달시장진출 실무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국제조달시장이 새로운 해외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연간 1조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조달시장의 효과적인 공략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미연방정부 조달시장의 개요, 정부입찰절차, 조달마케팅 전략 등으로 구성되며 워싱턴에서 초빙된 미국조달 전문컨설턴트 등의 강사진

이 생생한 진출전략을 전달하게 된다.

참가경비는 무료이며, 교육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다. 참여희망자는 25일까지 국제조달종합정보시스템(www.b2g.go.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된다.

▶ 기업성장지원국
해외시장과
(042-481-4467)

2004년 벤처기업대상 공모

중소기업청은 오는 10월 4일부터 5일까지 COEX에서 열릴 벤처기업의 최대 축제인 2004년도 '벤처기업 전국 대회'에서 벤처기업대상을 수상할 벤처기업 및 유공자를 공모한다.

올해 벤처기업대상에는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등 총 80여개 벤처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할 계획이며, 응모대상으로 벤처기업 부문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서 기술, 경영 등의 혁신 능력이 탁월한 기업이며, 유공자 부문에는 벤처정책, 금융지원, 해외진출지원 등에 공로가 큰 자 또는 기관이다.

특히 올해부터 벤처기업대상 수상업체에 대해서는 시상의 영예와 함께 기술신용보증 지원신청시

예비평가료(수수료) 면제, 정책자금 신청시 기술신용보증 우선지원, 중소기업의 경우 특례보증제도를 활용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우선지원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벤처기업전국대회는 독창적인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우수 벤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벤처CEO포럼, M&A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을 개최함으로써 벤처기업 재도약을 위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된다.

벤처기업대상 신청을 희망하는 벤처기업 및 유공자는 6월 21부터 7월 16일까지 벤처기업협회(02-6009-4100)에 신청하면 된다.

▶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
(042-481-4386)

중소기업 상담회사 운영실태 전면조사

- 전국 158개 상담회사 대상 -

중소기업청은 전국 158개 중소기업상담회사를 대상으로 7월 중순까지 전면적인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창업절차 대행, 사업타당성조사 및 경영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상담회사를 대상으로 운영현황 등을 전면 조사하여 상담회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창업지원법상 등록요건 미비 및 연락두절 등 문제가 있는 회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현지 실태조사에 앞서 중소기업청과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에서 실태조사표를 발송해 회사 현황, 등록요건, 용역사업

수행실적, 상근인력 보험 가입여부, 자격증 유효만료 등 50여개의 항목에 달하는 회사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표를 1차로 접수 받았으며, 제출된 조사표를 검토한 후 문제가 있거나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본청 및 지방중기청, 창업컨설팅 협회와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창업자의 효율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통해 창업설립 대행 및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용역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사업타당성검토 및 경영·기술지도용역은 최고 150만원, 절차대행용역은 최고 300만원,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은 최고 350만원 한도내에서 소요되는 용역대금

의 50%까지 지원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참고하면 된다.

▶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
(042-481-4430)

중소제조업 경기 조정국면 지속 전망

지난 4월중 중소기업의 경기는 전월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다음달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조정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경기국면 분석과 전망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중소기업 경기국면지수는 4월 들어 전월(103.3)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03.8을 기록했다. 이는 구성지표중 출하지수(-0.5p)는 감소했지만 생산지수(0.3p), 가동률지수(0.1p), 노동투입량지수(5.4p) 등이 상승한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중 경기국면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선행지표 성격의 중소기업

경영환경지수는 지난 4월중 전월대비 1.2포인트 하락한 99.6을 기록했다. 이는 고용지수(0.6p), 자금사정지수(0.1p), 채산성지수(0.1p)는 모두 증가하였으나 노동생산성지수(-2.9p) 및 재고순환지수(-0.5p)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 상승세를 보인 중소기업 경기는 2분기에도 전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0.5p)할 것으로 전망되나, 월별 경기국면지수는 5월 103.5(-0.3p), 6월 103.7(0.2p), 7월 103.4(-0.3p)로 조정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 중소기업정책국
정책평가과
(02-503-7932)